

교육감 선거 광주 1강·전남 대혼전

광주 장휘국 우세 속 이·최 추격...전남 고·장 백중세 부동층 30-50% ... 열성 지지자·조직력에 희비 갈릴 듯

앞서 다가온 교육감 선거가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누구를 찍을 지 모르겠다'거나 무응답 한 부동층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후보자별 열성지지 그룹과 조직들의 움직임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는 현 교육감으로 3선 도전에 나선 장휘국 후보의 우세 속에 이정선·최영태 후보가 맹추격하는 내용의 여론조사 발표가 잇따랐다. 전남의 경우 발표기관에 따라 고석규·장석웅 두 후보가 앞지러워지락하고 있고 오인성 후보의 추격 속도도 빠른 탓에 뚜껑을 열기 전까지 누구도 승리를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광주, 전교교·사학 막판 변수되나=최근 발표된 광주·전남교육감 여론조사는 5월 29일(프라임경제 의뢰 코리아정보리서치 실시), 6월 5일(무등일보 의뢰 한국갤럽 실시), 6월 6일(방송3사 의뢰 칸타파블락·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실시) 등 3차례다.

세 차례 여론조사에서 광주교육감 선거의 경우 이정선·장휘국·최영태 후보 오차범위 접전 양상과 장휘국 후보 1위가 흔해졌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장 후보가 상대를 20% 이상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지만, 부동층이 무려 3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운동 막판 또는 당일 후보자별 열성지지자 그룹 또는 조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장휘국 후보의 잇단 사립학교(사학) 때리기가 표심에 미칠 영향도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현 교육감인 장 후보는 지난 6월 청소년 초청 토론회에서 "사학이, 사립학교가 정말 말을 듣지 않는다. 바꿔보려고 해도 인사가 법안에 있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선거운동기간 내내 사학과 날을 세우는 장 후보에 대해선 소신

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불필요한 지직을 적절치 않은 타이밍'에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공존한다. 최영태 후보가 7일 논평을 내 "남탓, 사립학교 탓이 도를 넘었다. 교육 가족을 낙인 찍고 적대적 언어로 선동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것도 사실 장 후보 측의 사학 때리기에 비유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전남, 정치바람 VS 열성지지자=전남 교육감 선거는 더욱 혼전이다. 고석규·장석웅 후보가 2강을 이루며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번갈아 차지하고 있다. 두 후보를

맹추격하는 오인성 후보의 경우 7일 전직 교육장 100여명이 지지 의사를 밝힐 정도로 지지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잇단 여론조사에서 50%에 육박하는 부동층의 존재 역시 승부 예측을 더욱 힘들게 한다. 전남지역 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견고한 탓에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전남교육감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마케팅, 민주당 바람이 교육감 선거판에도 불어닥친 상황에서 저조한 투표율과 유권자 절반에 이르는 부동층 존재가 전교교 등 특정 그룹 또는 열성지지자를 많이 확보한 후보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민주 "한국당 여론 조작 의혹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과거 선거에 매크로(자동입력복)를 동원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安-金 단일화설에 바른미래 호남계 '부글부글'

김동철 "경악·분노"... 박주선 "선거 악영향"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7일에도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거론되자 바른미래당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당 출신 호남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기류가 확산했다. 당 차원에서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적폐세력 한국당과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안 후보가 당 지도부와 사전 상의도 없이

김 후보와 심야 회동을 하고, 여기에서 한국당이 '당 대 당 통합'까지 거론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흘러나온 데 따른 것이다.

두 후보의 지난 3일 심야 회동 등은 일찌감치 알려졌지만, 사흘이 지난 이날에서야 호남계의 성토가 집중된 건 지역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데도 두 후보 측이 단일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인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는 성명을 내고 "정산 대상인 한국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이런 시기에 최근 안-김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거론되고 급기야 당 대 당 통합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에 경악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공동대표도 "민의를 심판을 받아야 할 선거전에서 단일화를 내세워 더러운 정치 구판을 만들고 있다"며 "우리 당의 선거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하고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선거현장 전남지사·시장·군수 후보

김영록 "국제규모 기후변화연구단지 조성"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는 7일 "전남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 규모의 '기후변화연구단지'와 세계적 수준의 '생태식물공원'을 연계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화에 대비해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적응방안 마련 등을 수행하는 대규모 '기후변화연구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전남에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단지와 연계해 싱가포르의 '보타니 가든'과 영국의 '에덴프로젝트' 등과 같은 국제규모의 '에코생태식물공원' (가칭)을 조성해 글로벌 관광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에 안민석 지원 유세



더불어민주당 강인규(사진) 나주시장 후보는 7일 중앙당 '평화철도 111 유세단'과 안민석·전현의 의원 등과 함께 나주 대호동 호수공원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다.

이날 유세에서 안민석 의원은 "나주의 압도적 승리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면서 강 후보와 지방의원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전남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장과 정청래 유세단장, 황희 국회의원 등과 함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길거리 유세를 진행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황희 의원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될 때 나주와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성모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에 힘을"



김성모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는 7일 함평터미널에서 박영선·안민석·이개호 의원 등과 함께 합동유세를 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업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함평 발전 전략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산업기반이 열악한 함평의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안민석 의원은 "함평은 대한민국 골프교육의 중심지"라면서 "김성모 후보를 군수로 뽑아주신다면 함평에 골프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다"는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가 함평 경제를 살릴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며 지지를 호소해 호응을 받았다.

이길은 "예산·대형사업 정부 협조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 이길은 해남군수 후보는 7일 "연이은 민주당 지도부의 해남 방문은 해남군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당 차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집권여당 후보로서 민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받아 예산과 대형 사업 등을 이끌어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를 받아 해남군 발전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남 6일 박영선 의원과 이개호 의원과 함께 해남터미널과 중심 상가, 장터 등을 방문해 집중 유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송영길·신경민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6일에는 박영선·이개호 의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박병동, 후보 최초 청렴 실천 서약



박병동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후보는 7일 6·13지방선거 자치단체장 후보 최초로 청렴 실천을 '군수직 사퇴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장흥군청 앞 유세에서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다"며 "깨끗하다, 정직하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바로 군수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장흥군민에게 드리는 서약서"에서 ▲장흥군민 섬기는 위민 행정 ▲이관개입 없는 투명한 군정 ▲신속·공정한 인·허가 ▲금품 수수·정탁 NO ▲일한 만큼 대접받는 공직풍토 조성 ▲투명·공정 인사 ▲관한 위임, 대외업무 전담 ▲외풍 차단 ▲장흥군 발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동평 '허위사실 유포' 지역신문 대표 고소



전동평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는 7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역신문 대표와 편집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지역신문은 최근 전 후보의 혼외 아들설과 위임 후 가족이 운영하는 알파중공업의 수십억 채무 변제, 영암군 인사부정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 측은 "여성과 혼외자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만약 혼외자가 있으면 데려오고, 공개적으로 DNA검사를 받겠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 4년동안 알파중공업이 40억원의 채무를 갚았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라며 "4년전 부채 50억원에서 현재 43억원으로 7억원 정도 상환했다. 더구나 알파중공업은 현재 전 후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장일 후보에 지지를" 박지원 눈물 호소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가 7일 진도읍 5일장을 찾아 장일 후보의 유세를 지원했다. 천재배 전 대표, 운영일 의원도 동참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진도에서 태어난 것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평화당이 어렵다."

민주당이 전국을 싸늘이 하고 있다. 오직 진도, 해남, 목포, 강진, 고흥 등 5개 지역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서남권마저 싸늘이하기 위해 해남, 진도, 목포에 지도부를 투입하는 등 웅단폭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박지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일을 군수로 만들어야 한다. 장일 후보가 군수가 되면 운영일 의원과 박지원이 힘을 합쳐 진도발전 이뤄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산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김산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후보는 7일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군민을 위한 농수축산, 교육, 문화, 보건복지, 경제건설 등 모든 분야의 예산을 군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선후, 완급을 따져 집행할 것"이라며 "더 이상 불요불급 예산은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안은 국제공항과 KTX라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서남권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무안에 자리잡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무안군민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주민 예산 참여와 감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정옥·함평·황운학 기자 jwpark@kwangju.co.kr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약 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전체"수리 했습니다

